

# 현안과 과제

■ 설 체감심리의 7가지 괴리

# 목 차

---

## ■ 설 체감심리의 7가지 괴리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설 체감심리의 7가지 괴리 .....	2
3. 시사점 .....	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개 요

설 체감심리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 명절 분위기와 현재를 비교하고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 설 이후 경기 방향성 예측을 위해 중요하다. 올해 설 체감심리의 경우 분야별 회복 속도의 차이로 과거보다 체감심리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올해 설 체감심리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7개 부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설 체감심리의 7가지 괴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체감심리의 특징으로는 첫째, (가계와 기업 간 괴리) 가계와 비교하여 기업의 심리 회복이 미흡하다. 2017년 초까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던 경제심리지수가 최근 횡보하고 있다. 경제심리지수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심리지수 구성항목 중 가계 관련 심리지표는 다소 나아진 모습이다. 반면 기업들의 심리 지표는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계와 경기를 보는 시각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소득계층 간 괴리) 고소득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체감심리 회복이 미진하다. 월 소득이 400만원대인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2018년 1월 기준 115p, 500만원 이상 가계는 112p로 여타 소득 계층을 웃돈다. 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95p, 월 소득 100만원대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100p로 낮았다. 2013년 이후부터 타 계층과 괴리되며 낮아지기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심리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저소득층의 체감심리가 낮은 이유는 더딘 근로소득 향상, 취약한 고용환경 등이다. 최근 저소득층은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셋째, (연령별 괴리) 청장년층 체감심리는 양호하지만 고령층 체감심리는 부진하다. 소비지출전망은 2018년 1월 기준 30대 이하 116p, 40대 가구 114p, 50대 가구는 106p를 기록하였다. 반면 60대 가구의 소비지출전망은 99p, 70세 이상 가구의 경우 98p로 다른 연령층 보다 크게 낮았다.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 전망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반등하였으나 최근 다시 악화하였다. 고령층은 노후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크다. 최근에는 고령층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었으며 취업기회에 대한 전망 역시 2018년 1월에 크게 낮아졌다.

넷째, (지역 간 괴리) 대구·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의 체감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부산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4.3p 대구·경북은 103.9p, 경남 103.5p, 울산 103.5p로 전국 평균인 109.9p를 크게 밑돌았다. 영남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이후부터 다른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와 괴리되기 시작하였다. **영남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업황 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고용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이 위축된 것이 체감심리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이다.**

**다섯째, (수출기업, 내수기업 괴리) 수출기업 체감심리는 양호한 반면 내수기업 심리는 부진하다.** 수출기업의 업황BSI가 2018년 1월 기준 86p인 반면 내수기업은 업황BSI가 71p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업황BSI 격차는 2018년 1월 기준 15p로 2007년 11월 19p 이후 가장 크다. 2017년 초부터 수출기업의 체감심리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내수기업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감 심리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율은 높지만 아직 내수산업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며 내수기업 심리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대기업, 중소기업 괴리) 대기업 체감심리는 양호하지만 중소기업 심리는 크게 악화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업황BSI가 2018년 1월 기준 85p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업황BSI가 63p로 매우 부진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BSI 격차는 2018년 1월 기준 22p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23p 이후 가장 크다. 대기업의 체감심리는 2016년 초반을 저점으로 지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체감심리는 2017년 9월까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다시 급락하였다. **중소기업들은 내수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자금사정 역시 크게 악화된 것이 체감심리 위축의 배경으로 꼽힌다.**

**일곱째, (산업 간 괴리) 주력산업 중 전자, 화학, 철강 산업의 체감심리는 양호하지만 자동차, 조선, 석유·정제 산업의 심리는 매우 부진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업황BSI는 59p, 석유·정제 55p, 조선 49p를 기록하며 다른 주력산업들보다 체감심리가 매우 낮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0년부터 체감심리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급락하였다. 조선업의 경우 2016년 체감심리가 급락한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석유·정제 산업은 2016년 10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회복하였으나 최근 다시 급락하였다.

#### ■ 시사점

올해 설을 앞두고 경제주체들의 체감심리가 부문별로 크게 괴리되는 모습이다. 양극화되고 있는 부문 간 체감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계 대비 미진한 기업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층의 소비심리가 악화하지 않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가교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수출과 내수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내수회복 지연, 금리인상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개별 산업의 경기국면 판단과 향후 경기 방향성을 예측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 1. 개요

○ 올해 설 체감심리는 과거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분야별 회복 속도 차이로 체감심리가 양극화된 것이 특징

- 설 체감심리는 향후 경기 방향성 판단을 위해 중요

- 경제는 심리라 할 정도로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판단은 향후 경제의 방향성에 중요

-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제심리지수는 실제 경기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경제 심리지표는 경기의 움직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장래 적절한 경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
- 가계, 기업들의 심리 회복은 수요 회복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실제 경기회복에 기여

- 이번 설은 2016년과 2017년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야별로 보면 회복 속도가 차이가 나며 체감심리 양극화가 특징

- 국내 경제는 부문별로 성장 속도가 차이를 보이며 경제주체들의 평균적인 심리와 비교하여 회복 속도가 부진한 분야가 많음

○ 본 연구에서는 올해 설 체감심리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7가지 부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동향지수와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있음

- 가계의 경우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전망을 지역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를 체감심리 대리지표로 사용
- 기업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기업의 업황BSI 자료를 체감심리의 대리 지표로 분석

## 2. 설 체감심리의 7가지 괴리

### ○ (가계와 기업 간 괴리) 가계와 비교하여 기업의 심리 회복은 미흡

#### - 최근 경제심리지수<sup>1)</sup>는 정체

-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경제심리지수는 2017년 초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개선되는 모습
- 최근 경제심리지수는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여전히 기준치인 100p를 하회

#### - 경제심리지수 구성항목 중 가계와 기업 요인을 분해하여 본 결과 가계의 심리지수는 2016년, 2017년 보다는 다소 나아짐

- 경제심리지수 구성 항목 중 가계 관련 지수의 평균값은 최근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2018년 1월 107.0p로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

#### - 반면 기업의 심리지수는 가계와 상당한 괴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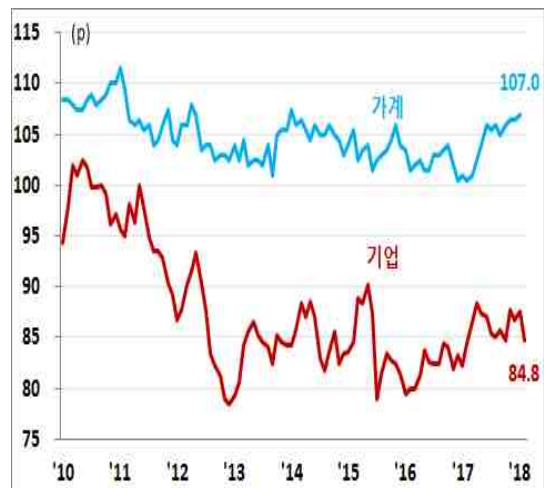
- 경제심리지수 중 기업 관련 지수의 평균값은 2018년 1월 84.8p로 과거 대비 낮으며 최근 하락세로 반전

< 경제심리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 및 기업심리지수<sup>2)</sup>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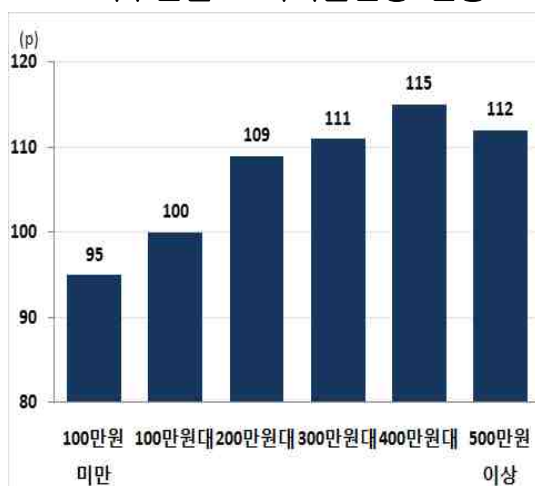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1) 경제심리지수는 CSI의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그리고 BSI의 제조업수출전망, 제조업가동률전망, 제조업자금사정전망, 비제조업업황전망, 비제조업자금사정전망 등 7개 항목의 가중평균으로 구성.
- 2) 가계심리지수는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의 평균값, 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수출전망, 제조업가동률전망, 제조업자금사정전망, 비제조업업황전망, 비제조업자금사정전망의 평균값으로 정의.

○ (소득계층 간 괴리) 더딘 근로소득 향상과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며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여전히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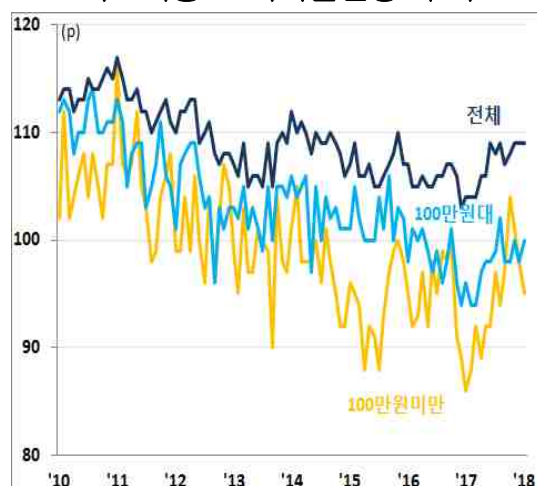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전망 격차가 여전히 큼
  - 월 소득이 400만원대인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2018년 1월 기준 115p, 500만원 이상 가계는 112p로 여타 소득 계층을 상회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95p, 월 소득 100만원대 가계의 소비지출은 100p로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낮음
- 2013년 이후부터 타 계층과 괴리가 커지기 시작한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17년 2월 소비지출전망이 88p을 저점으로 반등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낮아지는 모습
  - 월 소득 100만원대 가구 역시 2017년 3월 94p에서 2017년 10월 104p까지 올랐으나 최근 다시 하락
-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향상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소비심리가 부진
  - 저소득층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최근 부진<sup>3)</sup>한 모습을 보이며 체감경기 및 소비심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취업기회전망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

<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전망 현황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8년 1월 기준.

< 저소득층 소비지출전망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3) “가처분소득 정책의 5대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8.1).



○ (연령별 괴리) 노후부담, 취업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고령층의 소비심리가 낮음

- 고령층과 청장년층 간 소비심리의 괴리가 심화

- 30대 이하 가구의 경우 2018년 1월 기준 소비심리가 116p, 40대 가구의 경우 114p로 타 연령층 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50대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전망은 106p를 기록
- 60대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전망은 99p, 70세 이상 가구의 경우 98p로 다른 연령층과 괴리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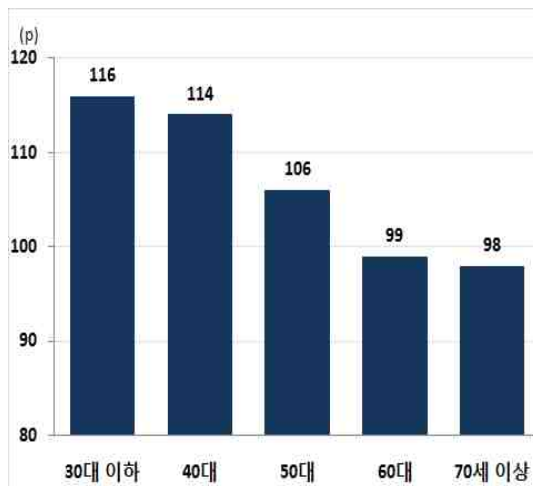
- 고령층(60대, 70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전망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반등하였으나 최근 다시 악화

- 60대 가구와 70세 이상 가구 모두 2017년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였으나 2018년 1월 다시 낮아지는 모습

- 고령층은 노후부담이 여전히 크고 취업기회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며 소비심리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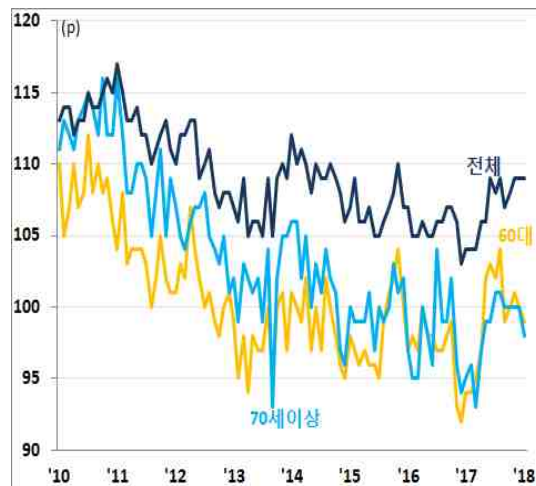
- 고령 가구는 여전히 높은 노후 불안감이 고령층 소비심리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쳐 소비심리가 낮음
- 고령층들의 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었으며 취업기회전망 역시 2018년 1월에 크게 낮아짐

< 연령별 소비지출전망 현황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8년 1월 기준.

< 고령층 소비지출전망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지역 간 괴리) 지역 산업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 부동산경기 등이 위축되며 영남 지역의 체감심리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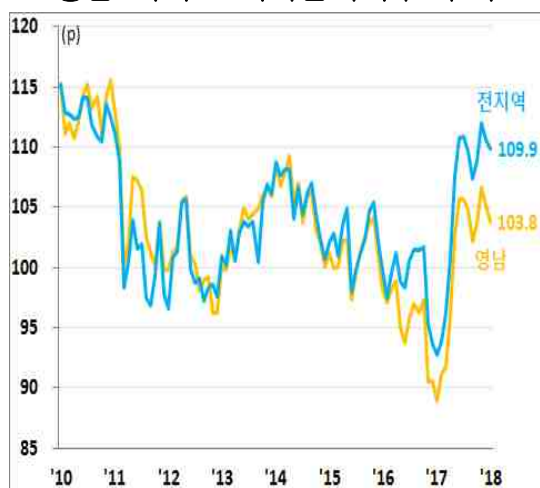
- 대구·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 체감심리 회복 상대적으로 부진
  - 소비자심리지수는 2018년 1월 기준 부산(104.3p), 대구·경북(103.9p), 경남(103.5p), 울산(103.5p)으로 다른 지역 대비 크게 낮음
  - 광주·전남(114.2p), 강원(111.8p), 대전·충남(111.6p), 전북(111.4p), 경기(111.0p) 등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상당히 높았으며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0p 수준 이상
- 영남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부터 다른 지역과 괴리 확대
  - 영남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이후부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기 시작
  - 2017년에 영남 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수준 자체는 다소 올라갔으나 전지역 소비자심리지수와 격차는 크게 확대
- 지역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 부동산 등에 영향을 미치며 영남 지역의 체감심리가 부진
  - 영남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업황 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부동산시장 역시 역성장 기록하는 지역 존재

< 지역별 소비자심리지수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8년 1월 기준.

< 영남 지역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영남 소비자심리지수는 부산, 대구·경북, 경남, 울산 지역 평균.

○ (수출, 내수기업의 괴리) 수출기업의 심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수출 개선이 내수부문으로 퍼지지 못하며 내수 기업 심리 부진은 지속

- 수출과 내수 기업 간 업황BSI 격차가 큼

- 수출기업의 경우 업황BSI가 2018년 1월 기준 86p로 내수기업 71p와 제조업 평균인 77p를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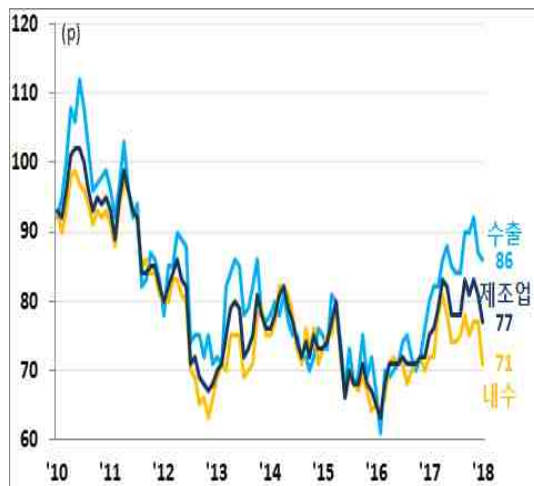
-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기업 심리는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수기업의 심리는 여전히 부진

- 2017년 이후부터 수출기업의 심리는 빠르게 개선 된 반면 내수기업의 체감 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락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업황BSI 격차는 2018년 1월 기준 15p로 2007년 11월 19p 이후 최대

- 수출 개선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며 내수 기업 심리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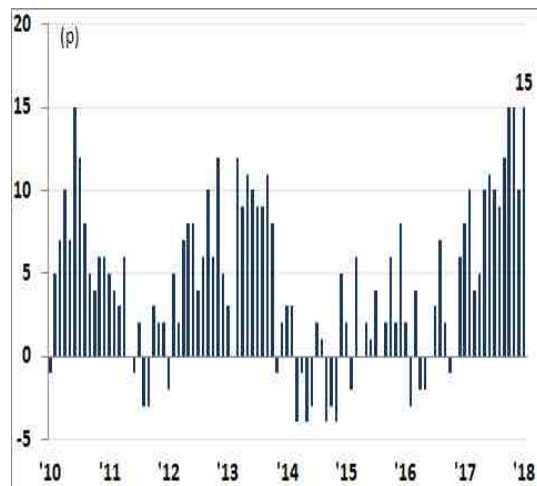
- 글로벌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율은 높지만 아직 내수산업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며 내수기업 심리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

< 수출, 내수기업 업황BS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제조업 기준.

< 수출, 내수기업 업황BSI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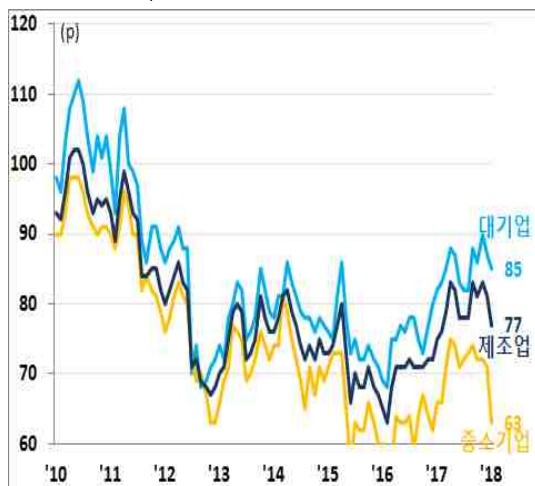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제조업 기준.  
2) 격차=수출기업 업황BSI-내수기업 업황BSI.

○ (대기업, 중소기업의 괴리) 내수판매 부진과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 심리가 악화하며 대기업과 심리 격차가 2008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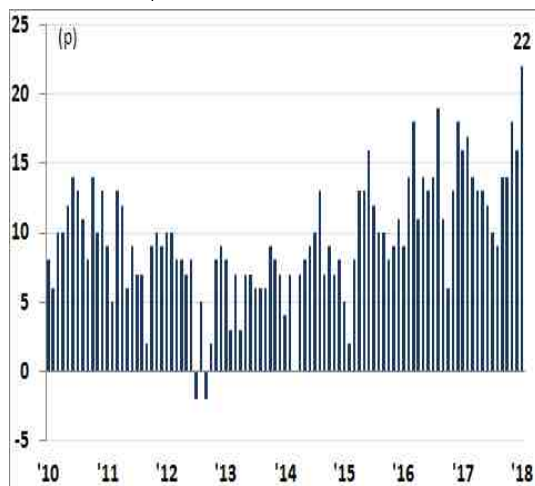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체감심리의 격차가 크게 확대
  - 대기업의 경우 업황BSI가 2018년 1월 기준 85p로 중소기업 63p와 제조업 평균인 77p를 크게 상회
- 중소기업 심리는 최근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전 저점 수준까지 하락
  - 대기업의 업황BSI는 2016년 2월을 저점으로 2017년 11월까지 지속해서 높아진 이후 최근 소폭 둔화
  - 중소기업의 업황BSI는 2017년 9월까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63p까지 급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BSI 격차는 2018년 1월 기준 22p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23p 이후 최대
- 중소기업들의 내수판매가 부진하며 자금사정 역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내수판매실적은 2017년 4월 80p까지 올랐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2018년 1월 기준 71p로 악화
  - 특히 자금사정실적은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2월(65p) 이후 가장 낮은 68p기록

< 대기업, 중소기업 업황BS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제조업 기준.

< 대기업, 중소기업 업황BSI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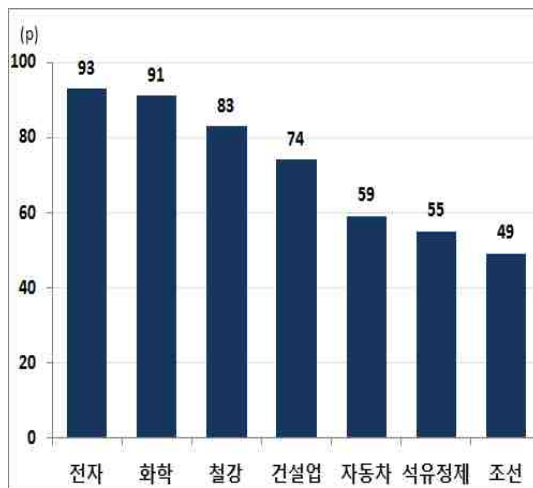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1) 제조업 기준.  
2) 격차=대기업 업황BSI-중소기업 업황BSI.

○ (산업간 괴리) 전자, 화학 산업의 체감심리는 양호하지만 자동차, 석유·정제, 조선 산업의 심리는 크게 악화

- 전자, 화학 등 산업은 체감심리가 양호한 반면 자동차, 석유·정제, 조선 관련 기업의 심리는 크게 악화
  - 전자 산업의 업황BSI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93p이며 화학 91p, 철강 83p를 기록
  - 반면 자동차 산업의 업황BSI는 59p, 석유·정제 55p, 조선 49p를 기록하며 업종과 체감심리 격차가 매우 큼
- 조선업은 2016년부터 이어진 체감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자동차, 석유·정제 산업은 최근 심리가 급락
  - 조선업의 경우 2016년 체감심리가 급락한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함
  -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0년부터 체감심리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
  - 석유·정제 산업은 2016년 10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다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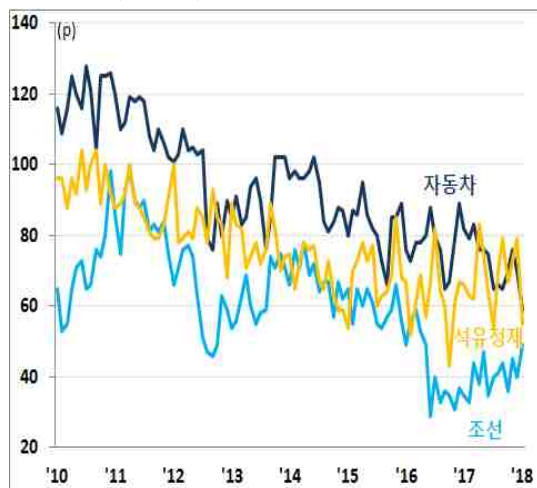
< 주력산업 업황BSI 현황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8년 1월 기준.

< 자동차, 조선, 석유·정제 업황BS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3. 시사점

- 취약계층 소비심리 회복, 내외수 균형성장 달성, 중소기업 경영 환경 악화 대비, 산업별 맞춤형 대책 등이 필요

첫째, 가계 대비 미진한 기업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업의 혁신 활동 자극,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친화적 경제 여건을 조성
  -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둘째,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의 불확실성 완화
  - 정부의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상용근로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눈높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생활지원 자금, 학자금 등 사회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의 강화
  - 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지
  - 경기 침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은 장기적인 소득 창출 방안 마련도 중요하나 단기적인 생활 자금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므로 자금 조달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

셋째, 고령층의 소비심리가 악화하지 않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가교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고령층의 노후 안정을 유도하고 사적 연금, 고령층 대상 보험 등을 활성화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개인연금,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역모기지 활성화 등 노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근로가능 노년층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가교일자리(bridge job)를 마련
  - 고령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65세 이상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유지하고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소위 가교일자리 마련이 필요함

넷째, 수출과 내수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내수 주도의 성장 전략보다는 수출과 내수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균형 성장 정책 추진
  - 내수산업 육성이 내수산업 보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재정정책 등 단기적인 수요 확대 정책보다는 내수 부문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수요 기반을 확대
  -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부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성을 제고

다섯째, 내수회복 지연, 금리인상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
  - 금리인상, 불확실성 확대, 경기 사정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여섯째, 개별 산업의 경기국면 판단과 향후 경기 방향성을 예측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 정책 당국이 산업별로 상이한 경기국면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경기전체의 부양 및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개별 산업에서 경기 과열 혹은 경기 급랭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경기가 부진한 산업의 경우 유효수요 창출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김천구 연구 위원 (2072-6211, ck1009@hri.co.kr)